

2019년 9월 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중국과 무역협상 일정 합의로 강세 반도체, 의류, 소비, 산업재, 금융 업종이 상승 주도

미 증시 상승 요인: 무역협상 일정 발표, 경기 침체 우려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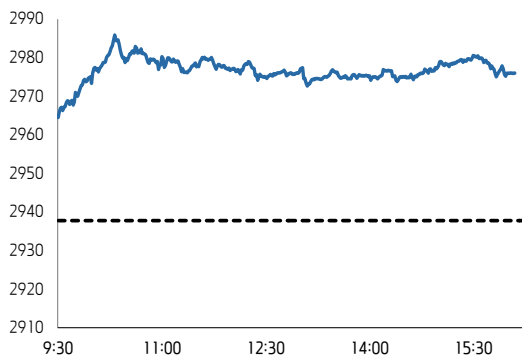
미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일정이 발표된 데 힘입어 상승 출발. 더불어 개선된 경제지표가 발표되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도 상승 요인. 특히 '스몰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상승 요인. 대체로 기술주, 금융주와 더불어 소매업종이 상승 주도(다우 +1.41%, 나스닥 +1.75%, S&P500 +1.30%, 러셀 2000 +1.75%)

미 증시는 기술주, 산업주, 금융주, 소매업종이 상승 주도. 기술주는 미국과 중국 정부가 무역협상 일정에 합의한 데 힘입어 상승 했음. 특히 미국이 금융안정을 위해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처리하자는 '스몰딜'을 추진하고 있음이 알려진 가운데 이뤄지는 협상이라는 점을 감안 일부 안건 처리가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 중국 관영언론 또한 이번 협상에 대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등 어느때 보다 기대되는 모습.

한편, 미국 국채금리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완화 및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 더불어 ADP 가 민간 고용보고서를 통해 비농업 고용자수가 예상을 상회한 19.5 만 건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국채금리 상승 요인. 특히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고용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줘 최근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 더불어 ISM 서비스업지수 또한 전월(53.7) 보다 개선된 56.4로 발표. 지표 개선 및 무역협상 기대가 유입되며 CME 는 FEDWatch 를 통해 9월 금리 동결 확률을 4.2%로 제시

이러한 변화 요인이 유입되며 마이크론(+4.74%)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 최근 부과된 관세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노드스트롬(+5.29%)등 의류업종을 비롯한 소비관련주, 캐터필러(+3.27%) 등 산업주가 상승 주도. 더불어 금리 상승에 기대 JP 모건(+2.28%) 등 금융주의 강세도 이어졌음. 다만, 미 증시는 상승 출발 후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대체로 관망하는 움직임을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04.75	+0.82	홍콩항셱	26,515.53	-0.03
KOSDAQ	632.99	+0.58	영국	7,271.17	-0.55
DOW	26,728.15	+1.41	독일	12,126.78	+0.85
NASDAQ	8,116.83	+1.75	프랑스	5,593.37	+1.11
S&P 500	2,976.00	+1.30	스페인	8,992.70	+1.54
상하이종합	2,985.87	+0.96	그리스	874.65	+2.36
일본	21,085.94	+2.12	이탈리아	21,955.07	+1.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7%, 소매업체 ETF +3.74%

마이크론(+4.74%), 퀄컴(+2.46%), 인텔(+2.41%), 자일링스(+2.94%)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미-중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힘입어 급등 했다.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7% 상승 했다. 이는 애플(+1.96%)을 비롯해 브로드컴(+2.83%), 쿼보(+3.87%), 스카이웍(+4.35%) 등 애플 관련주와 캐터필라(+3.27%), 3M(+2.60%) 등 산업재는 물론 원리조트(+2.21%), 카니발(+2.78%) 등 카지노 업종의 상승 요인이었다.

특히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드스트롬(+5.29%)을 비롯해 갭(+5.46%), L브랜드(+4.34%), 어반 아웃피터(+9.04%) 등 의류 업종의 급등을 불러 왔다. 더불어 TJX(+2.52%), 콜스(+2.46%), 메이시스(+2.68%) 등 백화점 업종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JP모건(+2.28%), BOA(+2.97%), 웰스파고(+2.41%), 시티그룹(+3.20%)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 반면, 리얼티인컴(-1.95%), 퍼블릭스토리지(-2.20%) 등 리츠금융과 넥스트라 에너지(-1.92%), 도미니온 에너지(-1.03%) 등 유틸리티 업종은 금리 상승 여파로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62%	대형 가치주 ETF(IVE)	+1.29%
에너지섹터 ETF(OIH)	+4.20%	중형 가치주 ETF(IWS)	+1.24%
소매업체 ETF(XRT)	+3.74%	소형 가치주 ETF(IWN)	+2.11%
금융섹터 ETF(XLF)	+2.04%	대형 성장주 ETF(VUG)	+1.52%
기술섹터 ETF(XLK)	+2.09%	중형 성장주 ETF(IWP)	+1.5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81%	소형 성장주 ETF(IWO)	+1.55%
인터넷업체 ETF(FDN)	+1.93%	배당주 ETF(DVY)	+0.89%
리츠업체 ETF(XLRE)	-0.8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66%
주택건설업체 ETF(XHB)	+1.1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2%
바이오섹터 ETF(IBB)	+1.17%	미국 국채 ETF(IEF)	-0.81%
헬스케어 ETF(XLV)	+0.99%	하이일드 ETF(JNK)	+0.36%
곡물 ETF(DBA)	-0.73%	물가연동채 ETF(TIP)	-0.45%
반도체 ETF(SMH)	+3.04%	Long/short ETF(BTAL)	-2.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1.01	+1.27%	+3.68%	+0.45%
소재	355.68	+0.21%	+2.25%	-0.50%
산업재	646.62	+1.77%	+3.88%	+2.75%
경기소비재	963.01	+1.90%	+3.32%	+4.24%
필수소비재	625.55	-0.73%	+0.52%	+3.35%
헬스케어	1,050.46	+0.98%	+1.30%	+0.92%
금융	453.94	+1.90%	+3.78%	+2.26%
IT	1,428.93	+2.13%	+4.35%	+5.09%
커뮤니케이션	170.20	+1.60%	+3.46%	+4.01%
유틸리티	318.15	-1.19%	+1.39%	+4.29%
부동산	245.36	-0.94%	+2.04%	+4.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상승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0% MSCI 신흥 지수 ETF 는 1.13%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64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1.30pt 상승한 266.0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6.9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미-중 무역협상 일정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경제지표 개선을 통해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 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무역협상 기조가 한꺼번에 처리하기 보다는 합의 가능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스몰딜'로 바뀐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협상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다. 다만, 관련 소식은 전일 한국 증시에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편, 미국의 경제지표 결과가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약화시킬 정도의 개선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ADP 가 발표한 8 월 고용건수가 예상을 상회했으나, 이는 서비스업종 위주의 개선이었고, 지난달 수치를 하향 조정(15.6 만건→14.2 만건)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ISM 서비스업지수가 크게 개선 되었으나, 세부 항목 중 고용지수가 하향 조정(56.2→53.1) 된 점을 감안 향후 고용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결국 무역협상에 관한 이슈는 전일 일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경제지표 결과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경기침체 우려 완화 및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지속으로 상승 출발이 기대된다. 다만 금요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상승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늘부터 유럽 최대 가전 컨퍼런스인 IFA 가전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하반기 주요 신제품 및 서비스를 공개한다. 이를 통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개선

8 월 미국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서 고용자수는 전월(14.2 만건)이나 예상치(15 만건)을 상회한 19.5 만건으로 발표되었다.

8 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3.7)이나 예상치(54.0) 보다 개선된 56.4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은 신규주문(54.1→60.3), 상업활동(53.1→61.5)는 개선되었으나 고용지수(56.2→53.1)은 둔화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국채금리 급등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 및 원유재고 감소 지속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제한되었다. 특히 EIA 가 발표한 원유재고가 예상(-210 만 배럴) 보다 큰 480 만 배럴 감소 했고, 가솔린이 240 만 배럴, 정제유가 250 만 배럴 감소하는 등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그리고 러시아의 산유량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분을 반납했다.

달러화는 파운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유로화 보험 등의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혼조 양상을 보였다. 파운드화는 노딜브렉시트 연기 법안이 통과된 이후 달러 대비 강세를 이어 갔다. 엔화는 무역협상, 노딜 브렉시트 완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여타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고용이 안정되는 등 경제지표 개선되고, 스몰딜 합의 기대가 높아진 미-중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고용보고서의 긍정적 전망이 이어진 점, 다음 주 3년, 10년, 30년물 국채입찰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금리 급등 요인 중 하나였다. 더불어 애플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7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금리 상승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2.2%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협상 재개소식에 힘입어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2%, 철근은 1.07%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30	+0.07	+0.93	Dollar Index	98.393	-0.06	-0.12
브렌트유	60.95	+0.41	+0.76	EUR/USD	1.1036	+0.01	-0.19
금	1,525.50	-2.24	-1.52	USD/JPY	106.94	+0.52	+0.39
은	18,807	-3.79	+1.90	GBP/USD	1.2331	+0.64	+1.23
알루미늄	1,784.00	+0.51	+1.77	USD/CHF	0.9865	+0.59	-0.01
전기동	5,845.00	+1.69	+2.07	AUD/USD	0.6815	+0.26	+1.29
아연	2,342.00	+1.39	+3.22	USD/CAD	1.3230	+0.05	-0.43
옥수수	358.75	+0.07	-3.30	USD/BRL	4.1103	+0.41	-1.45
밀	466.25	+1.19	-1.89	USD/CNH	7.1379	-0.13	-0.08
대두	861.50	-1.60	-0.49	USD/KRW	1200.20	-0.66	-1.33
커피	95.40	-1.24	-2.20	USD/KRW NDF1M	1196.93	-0.56	-0.9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564	+9.79	+6.91	스페인	0.230	+8.50	+13.10
한국	1.365	+3.00	+11.90	포르투갈	0.242	+8.50	+12.20
일본	-0.260	+1.70	+2.50	그리스	1.571	+1.30	+1.30
독일	-0.594	+8.00	+9.80	이탈리아	0.942	+13.40	-3.90